

SK케미칼, 동신제약 합병으로 도약

현대증권, 생명과학 매출 17.4% 증가 기대 ... 2007년 주력사업 부상

현대증권은 11월3일 SK케미칼에 대해 동신제약과의 합병 효과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5만700원에서 5만 5400원으로 9.2%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.

김태형 애널리스트는 “SK케미칼이 동신제약과 11월1일 합병을 완료했다”며 “생명과학부문 매출 비중은 2005년 8.6%에서 2006년 17.4%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동신제약과 합병효과가 반영되는 2007년에는 29.2%로 늘어나 주력사업으로 자리잡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김태형 애널리스트는 3/4분기 실적에 대해 “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.3%, 0.6% 감소하겠지만, 경상이익은 30.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경상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9월13일 SK 주식 매각 차익(390억 원)이 발생했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또 “최근 1개월간 SK케미칼 주가가 코스피지수 대비 10.7% 초과 상승했지만 향후에도 동신제약 합병에 따른 생명과학부문의 성장성이 부각되며 주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지적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객세연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03>